

“100년사 바라보는 ‘광주극장’ 더 아껴주고 찾아주세요”

배우 이제훈, 구교환이 주연을 맡은 영화 ‘탈주’가 오늘 전국 극장가에서 개봉한다. 이와 맞물려 최근 이제훈이 광주 극장가를 찾아 예술·독립영화에 대한 애정과 광주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얼마 전 유튜브 채널 ‘제훈씨네’에는 ‘현존하는 국내 영화관 중 두 번째로 오래된 극장 광주 극장’이라는 제목으로 이제훈의 광주 여행기가 업로드됐다.

전국 방방곡곡 극장 찾기 힐링 콘텐츠를 표방하는 유튜브 채널 ‘제훈씨네’는 원주 ‘고씨네(Go-Cine)’, 인천 ‘미립극장’, 제주 ‘숏폼’, 연희동 ‘라이카시네마’ 등 전국 독립·예술 극장을 찾아 영화사와 극장사에 대해 토크를 펼쳐왔다. 이번 광주 극장 방문은 다섯 번째 에피소드.

광주극장 김형수 전무이사는 “상업영화는 물론

예술·독립영화, 광주를 다룬 영화 등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이제훈 배우가 광주 극장가를 찾아 무척이나 반갑고 환영한다”며 “스크린에서 활약하고 있는 이 배우의 방문이, 지역 극장가에 활력을 불어넣는 ‘작은 이벤트’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제훈은 극장가 방문에 앞서 광주의 5월과 총탄 헬기 사격 탄흔 등을 간직하고 있는 ‘전일빌딩245’를 찾았다. 광주 시내를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옥상정원인 ‘전일마루’에 올라 민중화 흔적이 깃든 민주광장과 금남로, ACC 일원을 둘러봤다.

그는 “2년여 전 영화 ‘탈주’를 광주에 위치한 산에서 촬영한 뒤 시내를 한 바퀴 돌았는데, 높은 곳에서 광주 전경을 바라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며 “영화 ‘택시운전사’, 김현석 작 ‘스카우트’ 등 민주화 도시에서 찍었던 영화들이 떠올라 감회가

배우 이제훈, 영화 ‘탈주’개봉 앞두고 광주극장·광주독립영화관 방문

‘메이드인 광주’·‘광주 영화학교’ 지역영화지 ‘썬1980’ 관심 보여

전국 극장찾기 유튜브 ‘제훈씨네’ 다섯번째 에피소드 ‘광주극장’

깊다”고 했다.

이어 이제훈은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광주 독립영화관을 방문해 세계 3대 국제 단편영화제인 ‘기렐르몽페랑’ 앞에서 포즈를 취하는 등 독립예술 영화에 대한 애정을 보였다. 좌석에 착석한 뒤 “어느 위치에서 영화를 봐도 눈에 잘 들어올 듯하다. 조붓한 공간에서 함께 영화를 관람하면, 다른 이들과 ‘연결된 느낌’을 받을 것 같다”고 말했다. 독립영화와 공간에 대한 애착이 느껴졌다.

그의 말처럼 광주독립영화관은 174㎡ 규모에 101석 객석(장애인 2석 포함)을 갖춘 조붓한 공간이다. 3D 영상장비와 5.1채널 매립형 서라운드 스피커, 와이드 스크린 등을 갖추고 있어 여느 작품이라도 원작의 감동을 고스란히 즐길 수 있다.

이 곳에서 이제훈은 지역에서 창·제작된 영화를 상영하는 기획전 ‘메이드인 광주’, 예비 영화인을 육성하는 ‘광주 영화학교’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또 전국 유일 지역영화 비평지 ‘썬1980’ 등을 둘러보며 광주에서 자생하고 있는 영화 문화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이제훈 배우가 광주독립영화관을 찾아 영화집지 ‘썬1980’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광주독립영화관 제공>

이제훈은 광주 최고(最古)의 예술극장 ‘광주극장’도 찾았다. 그는 익숙스러운 모습으로 입구에 걸려있는 손간판 ‘버티내고 존재하기’와 자신이 출연했던 영화 ‘파수꾼’ 간판을 관람하며 웃어보인 뒤, 매표소에서 입장 시스템 등을 차례로 소개했다. 현재 1·2층 자유석으로 운영 중인 단관극장 시스템에 대해서도 “신기하다”는 생각을 남겼다.

아울러 ‘마지막 간판쟁이’라 불리는 박태규 화백이 작업하는 간판실을 찾아 지역 영화의 현주소를 돌아보았으며, 김다민 감독 작 ‘막걸리가 알려줄거

야’를 관람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는 “최근 충무로 대한극장이 9월까지 운영하고 폐관한다는 소식이 안타까웠다”며 “오랜 시간 그 자리에 존재해 온 극장은 언젠고 그 자리를 지킬 것 같지만 시간이 흘러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는 점이 가슴이 아프다”고 했다.

그러면서 “광주극장은 다행히도 90년, 100년사를 바라보고 있기에 더 아껴주고 싶고, 많은 분들이 이곳을 찾아 영화를 관람해 주셨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제 머릿속에만 혹은 차로를 통해서만 있는 거지 현존하는 국내 영화관 중 두 번째로 오래된 ‘광주극장’을 찾아 예술극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시간 ‘이제 꽃을 품다’

김혁정 개인전, 12일까지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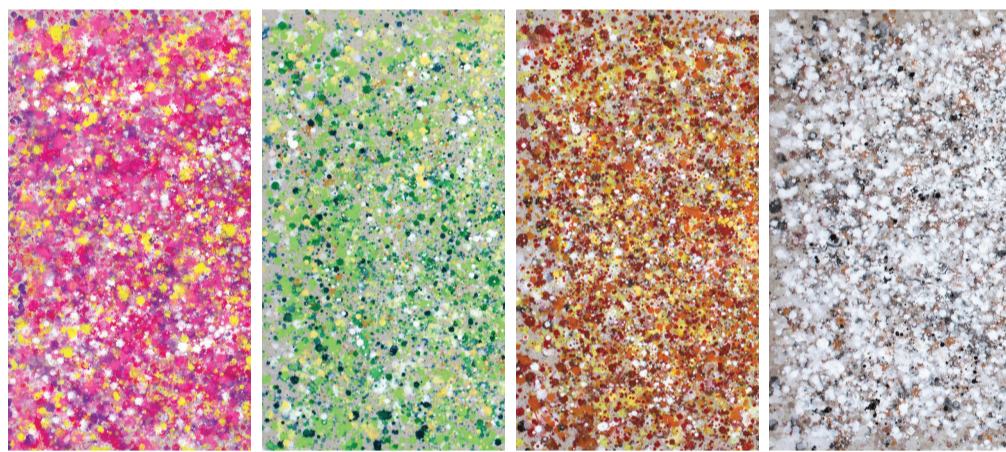
작품 ‘여름’을 보고 있으면 온 몸이 푸르러진다. 마음까지도 온통 푸르러지고 생각이 도는 것 같다. 그러나 그림의 배면에는 여름 너머 다가올 결실의 흔적도 어른거린다.

김혁정 작가가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에서 오는 12일까지 전시를 연다.

‘이제 꽃을 품다’를 주제로 열리는 전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시간이 투영돼 있다. 작품에는 꽃을 품기까지, 꽃이 피기까지의 지난한 시간과 그것을 마음에 두고 영원했을 아련한 순간이 담겨 있다.

‘봄’은 화려하고 화사하며 예쁘다. 다투듯 피어나는 꽃을 확대한 듯한 작품은 꽃의 향연을 보여준다. 마음에 담아두고 싶을 만큼 아름다운 풍경이다.

‘가을’은 갈색과 황토색의 이미지로 가득하다. 푸르름과 화려한 이미지를 넘어 절정을 넘은 자연은 한때 불타오르던 기억을 환기한다.



왼쪽부터 봄, 여름, 가을, 겨울(작품 일부)

반면 ‘겨울’ 작품은 눈꽃을 형상화한 듯 새하얗다. 오래도록 바라보고 싶다면 침잠과 순환, 순환과 생성의 미학을 사유하게 한다.

김혁정 작가는 작가노트에서 “때가 되면 꽃이 피어났다. 손바닥만 한 동명동 뜰이니 청매 한 그루로도 향기 넘쳤고 초목 짙을 대로 짙어지면 배롱나무꽃 오금조금 번갈아 백 일 피워내더

라”며 “시절이 꽃 피우나 꽃 피어 시절 아나, 그저 바라보던 나무 꽃 이제 내 안에 품는다”고 전했다.

한편 김 작가는 전남대 사범대 미술교육과를 졸업했으며 동 대학원 미술교육 석사과정을 졸업했다. 현재도 교수를 역임했으며 다수의 개인전을 열고, 그룹전에 참여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ACC, 테마강좌 통해 SF 연극 즐긴다

12~13일 ‘대리된 존엄’ 8월 23~24일 ‘거의 인간’

과학의 발달은 인간의 삶을 변화시켜왔다. 과학과 기술의 발달이 어느 선까지 가능할지 단언할 수 없다. 특히 미래 사회에는 인간의 생명과 관련된 윤리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이강현, ACC)이 첫 SF 연극 ‘대리된 존엄’(7월 12일-13일)과 ‘거의 인간’(8월 23일-24일) 공연과 관련된 강연을 연다. 이번 강좌는 주제와 작품을 연계해 생각해봄으로써 공연을 좀 더 깊이있게 즐기게 하는 취지다.

‘대리된 존엄’은 인공자궁을 매개로 한 대리모 산업의 이면을 다루고 있으며, ‘거의 인간’은 남편의 설득으로 인공자궁을 통해 출산을 결정한 이의 이야기가 모티브다.

강연은 오는 7월 9일부터 8월 22일까지 문화정보원B4(문화교육실5)에서 네 차례 연다.

첫 강연은 오는 7월 9일 ‘과학적 상상력과 문학적 스토리텔링의 만남’을 주제로 이은희(하리하라)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나선다. 눈의 특성을 모티브로 시각의 의미 등을 과학적 사실과 문학적 상상력으로 풀어낸다.

두 번째 강연(7월 11일)은 김재인 서강대 교수가 ‘인공지능의 시대, 인간을 다시 묻다’를 주제로 시민을 만난다. 김 교수는 인공지능 시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다각도로 이야기할 예정이다.

인간과 인간 외 타자와의 관계를 고찰하는 시간도 있다. 오는 8월 20일에는 이흥신 서울대학교



‘대리된 존엄’ <ACC 제공>

수가 ‘비인간과 인간의 관계(가제)’를 주제로 기술, 동물, 사물로 대표되는 비인간 존재들을 살펴본다. 이 교수는 인간은 ‘비인간 존재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가’를 함께 고민하고 논의할 계획이다.

마지막 강의(8월 22일) 주제는 ‘생성형 인공지능은 단지 기술일 뿐, 우리 시대 예술가가 기계와 함께 창작하는 방법’. 오영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와 창작의 역할은 물론 생성형 인공지능의 한계와 가능성에 대해 다룬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은 ACC 누리집 참조. 이강현 전당장은 “미래사회는 AI와 과학의 발달로 오늘날과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테마 강좌는 인간과 기계(기술)의 공존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한 폭넓은 사유의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엘가·바흐·드보르자크... 빛고을심포니 ‘사운드 오브 오케스트라’

9일 남구문화회관 공연장

엘가, 바흐, 드보르자크의 3인 3색 하모니.

빛고을심포니오케스트라가 ‘사운드 오브 오케스트라’ 공연을 오는 9일 오후 7시 30분 남구문화회관 공연장에서 펼친다. 남구문화예술회관과 공동 주관하며, 17~20세기 음악가들의 곡들이 울려 퍼질 예정이다.

먼저 엘가의 ‘사랑의 인사 Op.12’가 관객을 찾아온다. 다양한 편곡으로 널리 연주되는 대중적인 클래식으로 엘가가 결혼을 앞둔 약혼녀 캐롤라인 엘리스 로버츠를 위해 작곡한 사랑의 헌사곡이다. 그의 작품 중 초기작으로 꼽히며 낭만적인 분위기가 약곡 전편에 흐른다.

이어지는 ‘오케스트라 모음곡 3번 D장조, BWV 1068’은 바흐의 작품이며 궁정 음악회나 특별음악 행사 등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바로크 시대 명곡인 ‘에어(Air·G선상의 아리아)’가 포함돼 있어 주목을 받는다. 특유의 간결미, 섬세한 오케스트레이션의 구성으로 인해 여전히 대중에게 사랑받고 있다.

대미는 ‘새로운 세상으로부터’라는 제목으로도 알려진 드보르자크 ‘교향곡 9번, Op.95 E단조’이



‘빛고을심포니 오케스트라’ <빛고을창작공연 제공>

장식한다. 아다지오와 라르고로 출발해 알레그로 콘 푸오코(격렬하고 빠르게)로 마무리되는 작품. 한편 양진 음악감독이 이끄는 빛고을심포니오케스트라는 김영언 지휘자 등이 소속돼 있다. 바이올린은 문종아(악장), 윤재인·채송화(수석)를 비롯해 황란아, 배희재, 임예슬 등이 맡고 있으며, 비올라는 권혜린, 첼로는 김도영 수석 등이 연주하며 오보에(박영근), 바순(인혜비), 트롬본(서용일), 팀

파니(강승룡) 등이 있다. 양진 음악감독은 “엘가의 서정성, 바흐의 우아함, 드보르자크의 풍부한 하모니를 모두 느낄 수 있는 공연을 준비했다”며 “한 달 뒤에 펼쳐질 예정인 ‘우리동네 오케스트라’ 공연을 미리 만나는 프리뷰 공연 성격도 갖고 있다”고 했다.

관람료 1만원.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광주시립오페라단 ‘하반기 정기공연 출연자 공개 오디션’

광주시립오페라단(예술감독 최철)은 ‘2024년 하반기 정기공연 출연자 공개 오디션’ 공고를 오는 8일까지 진행한다.

오는 17~18일 현장 실연심사를 거쳐 19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며, 선발된 배우는 푸치니 오페라 ‘토스카’와 베르디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에 출연하게 된다.

지원 자격은 관련학과 졸업생, 관련 분야 유학 경험자, 오페라 작품에 경력이 있는 자에 한하며 전국 단위에서 공개 모집한다. 응시 곡은 작품별 지방 배역 아리아 1~2곡, 자유 아리아 1곡 등이며 개인 반주자를 동반(필수)해야 한다.

지난해 전석 매진했던 콘서트판데 ‘토스카’를 전막 오페라로 확장한 ‘토스카’는 김지영이 연출

을 맡았다. 문화심포니에타 오케스트라와 광주시향이 협연하며, 마르첼로 모타렐리가 지휘봉을 잡는다. 9월 6~7일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상연.

아울러 베르디의 첫 번째 로맨스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는 서울시오페라단장을 역임한 한국 대표 연출가 이경재가 연출을 맡았다. 독일 오스나부르크 극장 카펠마이스터(상임 지휘자) 송안훈 지휘자가 (사)카메라타전남, 광주시립합창단, 시립발레단과 호흡을 맞출 예정이다. 10월 25~26일 대극장 상연.

최철 예술감독은 “이번 오디션은 무대 경험을 쌓고 오페라 실연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최류빈 기자 rubi@